



**진안군의회 김명갑 산업건설위원장, 지방의정봉사상**

진안군의회(의장 김만규)는 지난 25일, 진안군의회 김명갑 산업건설위원장이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명갑 위원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으로 '진안군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운영 및 공공사업 발전을 위한 항후 대책' 등을 질의하며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며, '허리띠 문화복지 공간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군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앞장서 왔다."

또한 미등복 경로당의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왔다는 평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아 매우 큰 영광이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유태만 기자



**임실군의회 김종규 산업건설위원장, 지방의정봉사상**

임실군의회 김종규(다 선거구) 산업건설위원장이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초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종규 의원은 초선 의원임에도 제9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역임하며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을 대변하면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5분 발언을 통해 임실 서부권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제안하였으며, 임실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양심 활동에도 힘썼다.

김종규 산업건설위원장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립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군민과 함께하며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MZ직원과 청렴 소통 공감 데이트**

심덕섭 고창군수가 MZ직원과 대화시간을 갖고 청렴 노후를 전수하며 청렴도시 고창 만들기 에 적극 나섰다.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28일) 오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고창군수와 함께하는 청렴 공감 데이트가 열렸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내가 생각하는 청렴, 친절에 대한 생각,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고창군에 바란다 등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또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고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MZ공무원들의 마인드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대화자리를 통해 세대·직급 간 갈등 해소를 도모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자리매김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고창군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창군은 청렴도 향상과 다양한 소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균형 홈페이지에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민원실 앞에 무기명 청렴유체통을 설치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향후 2회차 군수와의 청렴 공감데이트는 향후 재·세정, 인·허가 담당 직원들과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후학양성 위한 발전기금 조성 뜻 모아'**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15주년 맞아 발전기금 1억 조성키로**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학부장 정태종)가 학부 설립 15주년을 맞아 발전기금 1억 원을 조성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2009년 자율전공학부로서 첫 걸음을 뗀 공공인재학부는 지난 주말 허강무 글로벌융합대학장을 비롯한 교수와 동문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 설립 15주년 기념 행사를 갖고, 후학양성을 위한 발전기금 조성에 뜻을 모았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초대 동문회장인 송상우 동문(국민연금공단)에게 감사장이 수여됐다.

이에 따르면 공공인재학부는 공공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융·복합 교육을 시행해 왔다. 특히 학생들이 전문 직역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멘토·멘티 프로그램과 다양한 학부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진로 설정을 돕고 있다. 또한 실무역량인증 등 각종 사업을 유치해 국회의원 연수, 로펌 체험, 대법원 연수, 동문 전문가 특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졸업생은 60여 명으로, 국가거점국립대학 단원대학 중 최고 수준이다. 현재 10여 명의 동문이 변호사, 재판연구원, 법무관 등으로 활동 중이다.



또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자격시험 합격자도 10여 명에 달한다.

정태종 공공인재학부장은 인사말에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가 주목받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동문과 재학생의 의지와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동문을 대표한 김종명 동문회장(삼일회계법인, 회계사)은 "지난 15년간 교수님들이 닦은 길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글로벌인재관에 모여 늦은 밤까지 꿈을 밝히며 노력한 결과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가는 공공인재학부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무주군산림조합, 산림생태대발 특성·활용방안 교육**

무주군산림조합(조합장 박철수)은 지난 28일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산주·임업인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산림생태대발의 특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주군 설천면 소재 백운산 생태교육 연구동에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국립산림과학원 김만조 박사가 강사로 나와 산림생태대발을 다층적 토지 재배방식으로 활용하는 집약재배 방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만조 박사는 "산림을 활용한 산림생태대발은 키가 크게 자라는 유실수나 특용수 아래 키 작은 관목류를 비롯해 채소, 산채, 약초류 등이 함께 자라기 때문에 무농약, 무경운의 유기농 자연농법을 지향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수 조합장은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소득 작물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임업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유교문화 체험 성료**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센터장 서정화)는 지난 25~27일 3일간 도민 30여명과 함께하는 '걸어서 유교문화 속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장답사와 강연 청취를 통해 유교문화의 진속도를 높이고 더불어 타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르면 제1회 유교문화 답사 지역은 경북 안동 권역이었다. 첫날은 병산서원과 하회마을을 방문, 둘째 날은 도산서원, 한국국학진흥원 박물관, 오천 군자리를 들렀다. 마지막 날은 의성김씨종택, 제신종택, 만류정을 둘러봤다.

또한 안동대 동양철학과 정성건 교수의 '안동과 퇴계학 강의와 한국국학진흥원 김순석 수석연구원의 '석주 이상룡의 독립운동' 강의를 통해 영남 유학의 흐름을 이해하고 근대 유학자의 삶을 조망했다.

이번 답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민 황지호 씨는 "안동 지역 답사를 통해 유교문화를 바라보는 인식이 넓어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김제시의사회, 수재의연금 500만원 기탁**

김제시의사회는 지난 28일 관내 재해 취약계층에 써 달라며 500만 원의 성금을 김제시에 기탁했다.

김제시의사회 김기범 회장은 "집시일한 회원들이 모은 성금이 수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김제시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나눔 활동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관내 재해 취약계층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김제=곽태기 기자

**만성산업, 임실군에 애향장학금 500만원 기탁**

(유)만성산업(대표 박종식)이 29일 임실군청을 방문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재)임실군애향장학회 이사장인 심 민 군수에게 전달했다.

이날 애향장학금 기탁식에 참여한 심준도 이사는 "현세대의 가장 큰 투자는 유능한 미래 인재를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탁금이 임실 미래 인재를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애향장학회의 목적은 임실군 미래 인재 양성에 그 동안 기탁해 주신 분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군산시 일원서 2023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개최**

군산새만금자동차경주장 및 CSCO 일원에서 개최된 2023년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가 지난 27일 폐막식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국내 최대의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이자 미래의 자동차 공학인을 육성하며 산·학·연 협력의 대표적 행사라 할 수 있는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는 한국자동차공회회가 주최하고 군산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코리아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업체와 부품업체, 유관기관 등 총 59개의 업체 및 기관이 후원하는 대규모 행사다.

이번 대회는 전국 67개 대학 104개 팀이 참가해 BAJA, Formula 기술부문 총 3개 종목에서 우승을 향한 학생들의 치열하고 열띤 경쟁의 장이 펼쳐졌다. 학생 및 지도교수, 관계자 등 약 2,200여명이 군산을 방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동차 도시로서의 군산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시키는 뜻깊은 행사가 됐다.



오프로드 경기인 BAJA 부문에서는 호남대학교 Asphalt\_HU1 팀이 차량감사, 동적성능평가를 비롯한 모든 경기에서 우수한 점수로 종합우승팀에 주어지는 KSAE 그랑프리플을 차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및 우승기가 수여됐다.

/군산=김관용 기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임시 운영... 9월 4일부터**

남원시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지난해 5월 월락동 부근에 추가 신축한 동부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을 오는 9월 4일부터 임시 운영할 예정이다.

위치는 요천로 1834(고죽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4층과 지하 1층의 연면적 2,996㎡의 규모로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운동처치실, 강당 등을 갖춘 곳으로 지난해 5월, 운영을 위한 위탁법인 선정은 추진했으나 의회 5분 발언, 신문보도 등을 통해 선정 관련 의혹이 지속됨에 따라 자체 조사 실시한 결과 선정된 수탁법인이 취소된 바 있다.

이후 해당 법인이 행정소송 및 행정처분을 제기함에 따라 정상 운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 어르신들의 복지관 이용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에서 임시직영 방안을 내놓았다.

임시 개관된 복지관은 당분간 시에서 직접 운영하며, 개



관 첫날인 9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는 복지관 이용을 위한 회원등록 기간으로 등록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실질적인 시설 이용은 9월 11일부터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하반기 자원봉사 단체장 간담회**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윤권)는 29일 고용복지공동교육관에서 자원봉사 단체장 및 임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김제시 자원봉사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원봉사 단체 간 원만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꾀하고자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반기 자원봉사 사업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하반기 자원봉사 운영계획에 대해 공유하며 관내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에게 지속적인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자원봉사센터는 센터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상반기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와 지난 8월 개최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캠프, 그리고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전북도민체전, 김제시정선축제 등 지역 내 각종 행사 및 축제들에 자원봉사자를 배치·운영하여 지역 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돕고 있다.

/김제=곽태기 기자



**순창 금과파출소, 팀별 상시교육 추진**

순창경찰서(서장 권미자) 금과파출소는 치안현장에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치안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팀별 협력토르크를 활성화하고 있어 내외부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금과파출소에서는 파출소장을 비롯 소속 구성원 모두가 주민이 곧 치안고객이란 심정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사안에 대해 친절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협력토르크를 실시하고 있다.

최종구 금과파출소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반복적 교육과 실천으로 내부역량 제고 및 민원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